

小兒泄瀉의 病因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李在媛*·張秀在*·金德坤*

I. 緒 論

泄은 水穀之物の 泄出을, 瀉는 脾胃之氣의 下陷을 말하는 것으로, 脾가 虛하면 瀉하는 것이다.^{9) 27)}

瀉病은 小兒疾患中 最多이니, 이는 小兒의 脾胃가 薄弱하여 被寒冷하거나 食生冷 등으로 쉽게 發病될 수 있기 때문이다.^{23) 24)}

小兒泄瀉는 여름철의 暑熱과 같은 時邪에 外感되어 發病하는 경우도 있고, 乳食의 過多로 脾胃를 傷하여 發病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疾患의 治療中에 不適當한 處置를 行한 것이 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놀란 일을 당함으로써 發病하는 경우도 있다.⁴⁾

따라서, 韓醫學에서는 風泄 寒泄 暑泄 濕泄 火泄 傷乳食泄 傷食泄 脾泄 腎泄 驚泄 等 原因論의 分類와 洞泄 殮泄 滑泄 濡泄 等 形態學의 分類를 하고 있으며, 原因에 따라서 大便의 樣相도 다르다.

西醫學에서는 泄瀉를 液狀 내지 粥狀의 糞便 排泄이 있고 排便 回數의 增加를 수반하는 것이라 하였으며,¹³⁾ 여러가지 刺戟으로 腸管의 蠕動運動이 異常亢進하고 腸管終末部の 通過가 促進되기에 水分의 吸收가 不完全한대로 內容이 排出되는 現象이라 하였다.²⁵⁾

대개는 大便의 畝수가 脫水狀態의 程度를 反映하는 수가 많으나, 甚한 炎症性 反應으로 腸管의 顯著한 浮腫을 招來하여 大便 畝수는 적 으면서도 甚한 脫水狀態를 일으킬 수도 있다.¹³⁾

특히 어린 嬰幼兒에서는 泄瀉로 水分 및 電解質 消失現象이 쉽게 일어나 重한 狀態를 招來할 수도 있는데 즉, infantile diarrhea의 例를 들면 이때 보통 하루에 水分消失量이 kg當 50 ml 혹은 그 以上이 되는데, 어른에서는 이러한 多量의 水分消失機會가 그리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5) 13)}

이에 著者는 諸文獻들을 通하여 泄瀉의 病因, 病理의인 面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臨床에 應用하고자 한다.

II. 本 論

〈泄瀉病因〉

萬病回春¹⁵⁾ 等에서는 乳食傷脾하여 發한다 하였고, 醫宗金鑑²⁰⁾ 等에서는 脾가 濕侵을 받아 土가 水를 勝하지 못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으며, 丁茶山小兒醫方⁹⁾ 等에서는 脾가 虛하면 瀉하는 것이라 하였고, 東醫臨床要覽⁴⁾ 等에서는 脾腎兩虧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幼科三種等^{21) 33)} 에서는 心脾肺實熱이나 虛熱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黃帝內經¹⁸⁾ 等에서는 胃虛하면 發한다 하였고, 幼科三種²¹⁾ 等에서는 氣虛下陷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風泄에 대해 東醫寶鑑等^{1) 8) 11) 14)} 에서는 봄에 風에 傷하여 風이 腸胃에 들어가면 夏節에 이르러 濕氣所感으로 暴泄을 發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幼幼集成³³⁾ 等에서는 肝木乘脾하여 發한다 하였고, 活幼心書³¹⁾ 等에서는 慢驚大病後에 오는데 이는 脾虛로 因한 것이라 하였고, 殮泄

* 慶熙醫療院 韓方病院 小兒科

에 대하여 東醫寶鑑等¹⁾¹¹⁾²⁰⁾²⁴⁾²⁵⁾에서는 春에 風邪에 傷하여 清氣下陷하면 脾失健運하여 完穀不化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으며, 醫學正傳等¹⁶⁾²³⁾²⁶⁾에서는 春傷於風하면 夏에 飧泄한다 하였고, 中寒瀉에 대해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過食生冷으로 寒邪凝結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寒泄에 대하여 韓方醫學指南⁶⁾ 등에서는 脾胃虛寒, 醫宗必讀²⁶⁾ 등에서는 秋冬寒涼으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濕泄에 대하여 丁茶山小兒醫方⁹⁾ 등에서는 寒濕이 膽을 傷하여, 東醫寶鑑¹¹⁾ 등에서는 寒濕이 脾胃를 傷하여 水穀을 腐熟하지 못하므로, 濟衆新編等¹⁾⁴⁾에서는 寒濕傷脾하여 發한다 하였고, 濡泄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濕으로 因하여, 醫學正傳等²³⁾²⁶⁾에서는 濕勝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火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臟腑積熱이나 外傷暑氣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고, 熱泄에 대하여 丁茶山小兒醫方⁹⁾ 등에서는 臟中에 積이 있거나 或은 生下傷濕으로 起因된 蘊熱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臍寒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斷臍失護하여 風冷이 侵入하여 大腸에 傳해져서 發한다 하였고, 藏寒瀉에 대하여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斷臍帶時 風冷이 外逼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傷乳食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乳食過飽로 脾胃를 損傷하여 乳食不化하여 發한다 하였고, 醫學入門²⁷⁾ 등에서는 內傷乳食不化하여, 丁茶山小兒醫方⁹⁾ 등에서는 乳滯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傷食瀉에 대하여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平素 脾胃가 弱한데 生冷果食에 傷하거나 乳母가 養生冷肥膩之物하여 發한다 하였고, 丁茶山小兒醫方等⁶⁾ 9)에서는 食滯로 因하여, 萬病回春等⁴⁾¹⁵⁾에서는 傷食으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積瀉에 대하여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脾氣虛弱하여 乳食入胃하여도 運化하지 못하고 積滯되어 있는

데 다시 冷食에 傷하여 大腸에 傳해지면 發하게 되는데 대개 脾胃에 積이 있기 때문이며,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宿食停滯于中하여 濕을 成하여 發한다 하였고, 癉瀉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積으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脾虛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脾氣虛弱하여 不能運化하여, 東醫臨床要覽⁴⁾ 등에서는 脾虛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脾熱作瀉에 대해 幼科三種²¹⁾ 등에서는 脾熱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고, 腎泄에 대하여 丁茶山小兒醫方⁹⁾ 등에서는 陽虛하여, 幼科發揮大全等¹¹⁾¹⁶⁾²⁶⁾에서는 腎은 開竅于二陰하고 主閉藏하는데 腎虛하여 閉藏을 主하지 못해 水谷自下하는 것이라 하였고, 肝瀉에 대하여 幼科三種²¹⁾ 등에서는 肝木乘脾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驚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脾氣虛弱한데 復受驚邪하여 發한다 하였고, 醫學入門²⁷⁾ 등에서는 夾驚泄은 木克土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洞泄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熱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고, 巢氏諸病源候論等¹⁷⁾²²⁾에서는 春傷風冷하면 夏爲洞泄하는데 이는 春에 解脫衣服하여 風冷에 傷하면 肌肉에 藏하게 되는데 脾가 肌肉을 主하는 故로 夏에 이르러 飲食居處가 不調하면 다시 風冷이 腸胃를 侵入하여 先後重沓하여 風邪所乘하게 되면 痢가 되는데 冷氣가 盛하고 痢가 甚하면 洞泄이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水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脾胃濕盛하여 清濁을 分利하지 못하여 發한다 하였고, 久瀉에 대하여 幼幼集成³³⁾ 등에서는 虛寒으로 因하여, 東醫寶鑑¹¹⁾ 등에서는 眞陰虛損 元氣下陷 또는 風邪內縮 또는 木剋土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瀉泄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寒으로 因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暴瀉에 대해 普濟方³⁰⁾ 등에서는 夏月暴瀉는 臟

寒으로 因하여, 醫學正傳等²³⁾²⁶⁾에서는 腸胃에 熱이 있어 傳化失常하여 發한다 하였다.

〈泄瀉病理〉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瀉病은 脾被顯侵하여 土가 水를 勝하지 못하여 發한다 하였고, 幼幼集成等⁶⁾²⁴⁾³³⁾에서는 무릇 泄瀉之本은 無不由於脾胃이니 胃는 水穀之海이고 脾는 運化를 主하므로 脾健胃和하면 水穀을 腐化하여 生氣血하고 行營衛하는데 만약 飲食失節하고 寒溫不調하여 脾胃가 傷하게 되면 水反爲濕 穀反爲滯하고 水穀精華之氣를 運化하지 못하고 乃致 合汚下降하여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聖濟總錄¹⁹⁾ 등에서는 水穀之海인 胃가 得寒하면 食物不化하고 氣血虧損하여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幼科三種²¹⁾ 등에서는 胃는 水穀之海로 精英流布하여 養五臟하고 糟粕을 傳送하여 大腸으로 歸하는데 內로 生冷乳食에 傷하고 外로 風寒暑濕에 傷하거나 飢飽를 失하여 脾不能消하고 冷熱相干하여 發하게 된다 하였으며,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胃는 水穀之海이고 腸은 水穀流行之道路인데 腸胃無邪이면 水穀이 變化하여 便溺流行하는데 宿食不化하여 陳腐之物이 腸胃之中에 菴積하여 있으면 變하여 泄痢를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中醫內科學³²⁾ 등에서는 寒濕 暑熱 등의 外邪가 脾胃를 損傷하여 그 功能이 障礙되어 清濁不分 升降失常하여 發하는데 脾惡濕喜燥인 故로 濕邪로 傷脾되기가 가장 쉽다 하였으며, 飲食過量으로 宿食停滯되거나 恣食油膩 或은 生冷不潔食物 등으로 因한 飲食所傷으로 脾胃를 損傷하여 功能이 障礙되어 發한다 하였고, 脾의 運化功能은 陽氣充足에 全賴하는데 만약 勞倦內傷 或은 泄瀉反復發作 등으로 脾陽이 不足하게 되면 水穀을 熟腐하여 精微를 運化하지 못하고 水穀이 停滯되어 大腸으로 入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泄瀉가日

久不愈하면 腎陽을 損傷하는데 腎陽은 “元陽” “眞陽”으로 稱하여 全身의 陽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腎陽不足은 脾陽에도 영향을 미쳐 連鎖反應으로 泄瀉不止하게 된다 하였다. 風泄에 대하여 東醫寶鑑等¹⁾⁹⁾¹¹⁾¹⁴⁾에서는 봄에 風에 傷하여 風이 腸胃에 入하면 夏節에 이르러 濕氣所感으로 暴泄을 發하는 것이라 하였고, 幼幼集成³³⁾ 등에서는 肝木乘脾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殭瀉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等¹⁾¹⁶⁾²⁰⁾²⁴⁾²⁵⁾에서는 春에 風邪에 傷하여 清氣下陷하면 脾失健運하여 發한다 하였고, 醫宗必讀²⁶⁾ 등에서는 清氣는 본래 上升하여야 하는데 虛하면 下陷하여 收하지 못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으며, 醫學正傳等²³⁾²⁶⁾에서는 春傷於風하면 夏生飧泄하는데 이는 肝應於春하고 肝木主風하니 春傷於風이면 肝이 邪氣를 받아 木旺하여 賊土하고 夏에 助其濕하여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東醫小兒科學⁸⁾ 등에서는 脾의 主要作用은 津液을 運化하고 升清降濁하여 全身을 供養하니 즉, 脾가 升清氣하고 降濁氣하는 것이 正常的인 現象인데 만약 清氣下陷하면 泄瀉不止 飲食不化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바로 脾의 運化機能이 旺盛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濕泄에 대하여 東醫寶鑑¹¹⁾ 등에서는 寒濕이 脾胃를 傷하여 水穀을 腐熟하지 못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臍寒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斷臍失護하여 風冷乘入하여 大腸으로 傳해져 發한다 하였고, 藏寒瀉에 대하여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斷臍帶時 風冷이 自外逼內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傷乳食瀉에 대해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乳食過飽로 脾胃를 損傷하여 乳食不化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고, 傷食瀉에 대하여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平素 脾胃가 弱한데 復爲生冷果食所傷하여 發하거나 乳母가 養生冷肥膩之物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積瀉에 대하여 幼科發揮大全¹⁶⁾ 등에서는 宿食停滯于中하여 濕을 成하여 發한다 하였고, 活幼心書³¹⁾ 등에서는 脾氣虛弱한데 乳食入胃하여 運化하지 못하고 積滯日久한데 다시 冷食에 傷하여 傳之大腸하여 發하는데 脾胃에 積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脾虛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脾氣虛弱하여 運化하지 못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고, 腎泄에 대해 幼科發揮大全等¹⁶⁾²⁶⁾에서는 腎은 二陰에 開竅하고 閉藏을 主하는데 腎虛하면 主閉藏하지 못하여 水穀自下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肝瀉에 대하여 幼科三種²¹⁾ 등에서는 肝木乘脾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驚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平素 脾氣弱한데 復受驚邪하여 發한다 하였고, 醫學入門²⁷⁾ 등에서는 木尅土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洞泄에 대하여 巢氏諸病源候論等¹⁷⁾²²⁾에서는 春傷於風冷하면 夏爲洞泄하는데 春時 解脫衣服하여 風冷에 傷하여 藏在肌肉한데 脾는 肌肉을 主하므로 夏에 이르러 飲食居處가 不調하여 다시 風冷이 腸胃를 侵入하면 先後重沓하여 風邪所乘하게 되어 痢를 發하게 되고 冷氣가 盛하고 痢가 甚하면 洞泄을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水瀉에 대하여 醫宗金鑑等²⁰⁾²⁴⁾²⁵⁾에서는 脾胃濕盛으로 清濁을 分利하지 못하여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久瀉에 대하여 東醫寶鑑¹¹⁾ 등에서는 眞陰虛損 元氣下陷 또는 木尅土하여 發한다 하였고, 暴泄에 대하여 醫宗必讀²⁶⁾ 등에서는 腸胃에 熱이 있어 傳化失常하여 發한다 하였다.

위의 내용을 表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表 8>

表 1. 泄瀉의 病因

病 因 文 獻	風	寒	暑	濕	風冷	寒濕
	巢氏諸病源候論					○
太平聖惠方					○	
活幼心書					○	
醫學正傳				○		
幼科發揮大全		○		○		
醫宗必讀		○		○		
東醫寶鑑	○			○		○
醫宗金鑑			○	○	○	
濟衆新編	○			○		○
丁茶山小兒醫方	○			○		○
醫宗損益	○			○		○
萬病醫藥顧問			○		○	
小兒科與痧痘科			○		○	
中醫內科學		○	○	○		

表 2. 泄瀉의 病因

病 因 文 獻	乳食傷脾	飲食過量致宿食停滯	過食生冷	生冷不潔食物	恣食油膩
	活幼心書		○	○	
幼科發揮大全		○			
醫學入門	○				
萬病回春	○	○			
醫宗金鑑	○		○		
丁茶山小兒醫方	○	○			
萬病醫藥顧問	○		○		
小兒科與痧痘科	○		○		
中醫內科學		○		○	○
韓方醫學指南		○			
東醫臨床要覽		○			

表 3. 泄瀉의 病因

病 因 文 獻	脾 虛	胃 虛	腎 虛	脾 陽 不 足	腎 陽 不 足	脾 腎 兩 虧	清 氣 下 陷
黃 帝 內 經		○					
幼科發揮大全	○		○				
醫 宗 必 讀			○				
東 醫 寶 鑑			○				○
醫 門 寶 鑑							
醫 宗 金 鑑	○						○
幼 幼 集 成	○						
濟 衆 新 編							○
丁茶山小兒醫方	○				○		
萬病醫藥顧問	○						○
小兒科與痧痘科	○						○
中 醫 內 科 學				○	○		
東醫臨床要覽							○

表 4. 泄瀉의 病因

病 因 文 獻	脾 胃 虛 寒	脾 氣 虛 弱 復 受 驚 邪	氣 虛 下 陷	真 陽 虛 損 元 氣 下 陷	虛 寒	臟 寒	脾 胃 濕 盛 清 濁 不 分
幼 科 三 種			○				
普 濟 方						○	
醫 門 寶 鑑				○			
醫 宗 金 鑑		○					○
幼 幼 集 成					○		
萬病醫藥顧問		○					○
小兒科學痧痘科		○					○
韓方醫學指南	○						

表 5. 泄瀉의 病因

病 因 文 獻	虛 熱	心 脾 肺 實 熱	脾 熱	腸 胃 有 熱 傳 化 失 常	臟 腑 積 熱	肝 木 乘 脾	積 在 臟 中
幼 科 三 種	○	○	○				○
醫 學 正 傳				○			
醫 宗 必 讀				○			
醫 學 入 門							○
醫 宗 金 鑑					○		
幼 幼 集 成	○	○					○
丁茶山小兒醫方							○
萬病醫藥顧問					○		
小兒科與痧痘科					○		

表 6. 泄瀉의 病理

病 理 文 獻	脾 被 濕 侵 土 不 勝 水	胃 水 之 得 則 ... 虛 損	為 穀 海 寒 ... 氣 虧 損	春 於 ... 夏 濕 發 瀉	傷 風 至 感 而 暴 瀉	傷 風 為 泄 ... 為 洞 泄	斷 失 風 冷 乘 入 於 腸	臍 護 冷 入 於 腸	寒 傷 脾 ... 不 能 水 穀 腐 熟
巢氏諸病源候論						○			
太 平 聖 惠 方						○			
聖 濟 總 錄			○						
活 幼 心 書							○		
東 醫 寶 鑑				○					○
醫 宗 金 鑑	○								
濟 衆 新 編				○					
丁茶山小兒醫方				○					
醫 宗 損 益				○					
萬病醫藥顧問	○								
小兒科與痧痘科	○								

表 7. 泄瀉의 病理

病 理	胃者穀海 水之化腐 宿不陳之 變爲泄痢	乳食過飽 損傷脾胃 乳食不化	脾胃弱 復爲生冷 果食所傷	宿食停滯于中而 成濕	清 氣 下 陷	脾氣虛弱 不能運化
活 幼 心 書			○			
幼科發揮大全	○			○	○	
東 醫 寶 鑑					○	
醫 宗 金 鑑		○			○	○
濟 衆 新 編					○	
萬病醫藥顧問		○			○	○
小兒科與痧痘科		○			○	○

表 8. 泄瀉의 病理

病 理	腎虛則 水穀自下	脾氣素弱 復受驚邪	肝 木 乘 脾	脾胃濕盛 清濁不分	腸胃有熱 傳化失常	感受外邪 飲食所傷 臟腑虛衰 及失調
幼 科 三 種			○			
醫 學 正 傳			○			
幼科發揮大全	○					
醫 宗 必 讀	○		○		○	
醫 學 入 門			○			
醫 宗 金 鑑		○		○		
幼 幼 集 成			○			
萬病醫藥顧問		○		○		
小兒科與痧痘科		○		○		
中 醫 內 科 學						○

III. 總括 및 考察

泄瀉의 病因을 總括하여 보면, 許等¹⁾⁹⁾¹¹⁾
¹⁴⁾은 風邪, 萬等¹⁶⁾²⁶⁾³²⁾은 寒邪, 吳等²⁰⁾
²⁴⁾²⁵⁾³²⁾은 暑邪, 虞等¹⁾¹⁴⁾¹⁶⁾²⁰⁾²³⁾²⁶⁾³²⁾
은 濕邪로 因하여 發한다고 하였으며, 李等⁹⁾¹⁵⁾²⁰⁾²⁴⁾²⁵⁾²⁷⁾은 乳食傷脾, 曾等⁴⁾⁶⁾⁹⁾¹⁵⁾
¹⁶⁾³¹⁾³²⁾은 飲食過量 致宿食停滯, 曾等¹⁶⁾
²⁰⁾³¹⁾³²⁾은 過食生冷, 中³²⁾等은 生冷不潔
食物, 曾等³¹⁾³²⁾은 恣食油膩로 因하여 發한
다고 하였고, 萬等⁴⁾⁹⁾¹⁶⁾²⁰⁾²⁴⁾²⁵⁾³³⁾은 脾虛,
楊¹⁸⁾等은 胃虛, 萬等¹¹⁾¹⁶⁾²⁶⁾은 腎虛, 中³²⁾
等은 脾陽不足, 丁等⁹⁾³²⁾ 腎陽不足, 中³²⁾等
은 金⁴⁾等은 脾腎兩虧, 許等¹⁾⁴⁾¹¹⁾²⁰⁾²⁴⁾
²⁵⁾은 清氣下陷, 李⁶⁾等은 脾胃虛寒, 吳
等²⁰⁾²⁴⁾²⁵⁾은 脾氣虛弱 復受驚邪, 翁²¹⁾等은
氣虛下陷, 周¹⁰⁾等은 眞陽虛損 元氣下陷, 陳
³³⁾等은 虛寒, 朱³⁰⁾等은 臟寒, 吳²⁰⁾²⁴⁾²⁵⁾
等은 脾胃濕盛 清濁不分, 翁²¹⁾³³⁾等은 虛熱
또는 心脾肺實熱, 翁²¹⁾等은 脾熱, 虞²³⁾²⁶⁾
等은 腸胃有熱 傳化失常, 吳²⁰⁾²⁴⁾²⁵⁾等은 臟
腑積熱, 翁等²¹⁾²⁷⁾³³⁾은 肝木乘脾, 丁⁹⁾等은
積在臟中으로 因하여 發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小兒泄瀉의 病因은
風寒暑濕 等の 外邪와 過食生冷 等으로 因한
飲食所傷 그리고, 脾虛 腎虛 肝木乘脾 等の 臟
腑虛衰及 臟腑失調가 主要한 病因으로 나타났다.

그 中 外因에서는 특히 濕邪가, 內因에서는
脾虛가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病理面에 대하여 吳等²⁰⁾²⁴⁾²⁵⁾은 脾被濕侵하
여 土가 水를 勝하지 못하여 發한다 하였고,
許等¹⁾⁹⁾¹¹⁾¹⁴⁾은 春에 風에 傷하여 風이 腸
胃에 들어가면 夏節에 이르러 濕氣所感으로 暴
泄을 發한다고 하였으며, 吳等²⁰⁾²⁴⁾²⁵⁾은 乳
食過飽로 脾胃를 損傷하여 乳食不化하게 되어

發한다 하였고, 萬等¹⁾¹¹⁾¹⁶⁾²⁰⁾²⁴⁾²⁵⁾은 脾가 津液을 運化하고 升清氣하며 降濁氣하는 것이 정상적인 現象인데 만약 脾의 運化機能이 旺盛하지 못하여 清氣下陷하면 發한다고 하였으며, 萬等¹⁶⁾²⁶⁾은 腎은 二陰에 開竅하고 閉藏을 主하는데 腎虛하면 主閉藏하지 못하여 水穀自下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翁等²¹⁾²³⁾²⁶⁾²⁷⁾³³⁾은 肝應於春하고 肝木主風하니 春傷於風이면 肝이 邪氣를 받아 木旺하여 賊土하게 되고 夏에 助其濕하여 發하게 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小兒泄瀉의 病理는 外感邪氣 飲食失節 臟腑虛衰及 失調 등으로 水穀之海인 胃와 運化를 擔當하는 脾가 受傷하여 水穀精化之氣를 輸化하지 못하여 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本病은 主로 脾胃와 密接한 關聯이 있으며, 이들의 功能障礙는 主로 邪氣의 影響과 身體의 虛弱으로 因하여 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小兒泄瀉의 病因·病理에 關한 諸文獻들을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泄瀉의 病因은

1. 外感邪氣(風 暑 濕 寒 等)
 2. 飲食傷(過食生冷 不潔食物 等)
 3. 臟腑虛衰 및 失調(脾腎陽虛 肝木乘脾 等)
- 이며,

泄瀉의 病理는 外感邪氣 飲食失節 臟腑虛衰 및 失調 등으로 脾胃受傷하고 水穀精化之氣를 輸化하지 못하여 發한다.

V. 參考文獻

1.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p. 100~103, 1975.
2. 金信根: 醫療藥學, 서울, 文聖社, p.521, 1977.
3.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709, p.275, 1974.
4. 金定濟: 東醫臨床要覽, 서울, 書苑堂, p. 212, 1977.
5. 君德鎮: 小兒의 應急處置, 中央醫學社, pp. 59~75, 1972.
6. 李常和: 韓方醫學指南, 서울, 翰林社, pp. 509~511, 1974.
7. 李義仲: 經驗要鑑, 대구, 흐름社, p.201, 1978.
8.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pp. 234~237, 1985.
9. 丁茶山: 丁茶山小兒醫方, 서울, 杏林出版, pp.50~56, 1976.
10.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pp. 259~263, 1971.
1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182~186, 1981.
12. 洪彰義: 小兒科診療, 香隣社, pp.316~319, 1973.
13. 洪彰義: 臨床小兒科學概論, 서울, 대한教科書株式會社, pp.351~352, 1975.
14. 黃道淵: 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pp.157~180, 1976.
15.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卷下, pp.141~142, 1972.
16. 萬 全: 幼科發揮大全, 台北, 文光圖書公司, pp.97~107, 1954.
1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總論, 台中, 昭人出版

- 社，卷47，pp.9~10.
18. 楊維傑：黃帝內經，台聯，國風出版社，
p.140.
 19. 吳錫璜：聖濟總錄，影印本，卷179，p.3.
 20. 吳謙：醫宗金鑑，서울，大星文化社，pp.
616~620，1983.
 21. 翁仲仁等：幼科三種，台北，東方圖書公司，
1962.
 22. 王懷隱：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p.
2999，1979.
 23. 虞搏：醫學正傳，서울，成輔社，pp.237
~243，1986.
 24. 陵青節：萬病醫藥顧問，서울，書苑堂，pp.
121~128，1978.
 25. 陵青節：小兒科與痧痘科，台灣，東方書店，
pp.121~129，1959.
 26. 李中梓：醫宗必讀，台北，大方出版社，
卷7，pp.282~287，1978.
 27. 李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pp.368
~369，1978.
 28. 張子和：儒門事親，台北，旋風出版社，卷
4，pp.9~12，卷5，p.17，p.19，卷6，
pp.2~3，pp.48~50.
 29. 程國彰：醫學心悟，台北，大方出版社，pp.
178~179，1978.
 30. 朱橚：普濟方，衛生出版社，卷394，pp.
1001~1002.
 31. 曾世榮：活幼心書，上海，大東書局，
pp.22~25，1937.
 32. 中醫學院：中醫內科學，上海，商務印書館，
pp.71~73
 33. 陳復正：幼幼集成，台北，大中國圖書公司，
卷3，pp.12~13，1955.